



통영 옥지도 모노레일

경남에도 봄이 오나 봄! 경상남도 봄맞이 비대면 안심 관광지 16선 소개

경상남도(도지사 김경수)는 봄을 맞이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도내 비대면 안심 관광지 16선을 추천·소개했다.

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봄날,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가볼 수 있는 경남 봄철 비대면 안심 관광지를 만나보자.

+진해 내수면 환경생태공원(창원) 유수지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조성된 환경공원으로 습지 보전지역에 꽃동산을 조성했다.

+옥지도(통영) 생태·휴양의 섬 옥지도의 명물인 모노레일에 몸을 실으면 아름답고 활기찬 옥지마을의 전경과 연화도·우도·국도 등 탄성을 자아내는 한려수도의 보석 같은 섬들, 그리고 청정한 해안 경관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. 옥지도 주민들이 예부터 이용해온 벼랑길을 다듬어 950여m의 아찔한 해안 산책로에 설치된 출렁다리도 꼭 한번 건너보자.

+용두공원(사천) 와룡저수지 옆에 조성된 용두공원에 가면 튼튼이 있는 풍차 공원이 있어 이국적인 느낌을 준다. 총면적 5만4천㎡의 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, 체육시설, 산책로 등이 잘 갖춰져 있으며 토끼와 다람쥐도 종종 만날 수 있다.

+김해 낙동강 레일파크·와인 동굴(김해) 왕복 3km의 철교를 달리는 레일바이크와 와인 동굴에서 판매 중인 김해 특산물 '산딸기와인'을 맛보며 낙동강 노을을 감상하는 것도 낭만적이다.

+영남루 수변공원 길(밀양) 봄이면 밀양강을 따라 늘어선 벚나무들이 활짝 꽃망울을 터트린다. 강변 둔치의 유채꽃, 장미꽃, 길가의 조팝꽃, 개나리 등 봄꽃들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.

+도장포마을 동백터널 숲(거제) 바람의 언덕이 있는 곳으로 옛 마을 안길에는 동백나무숲이 빼곡히 조성됐다. 동백나무 사이로 햇빛이 내리쬐면 몽환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.

+원동역(양산) 원동역부터 경부선 철길을 따라 빼곡하게 열린 꽃길이 낭만적인, 한적한 봄철 여행지다. 봄이면 분홍빛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는 원동마을에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벽화들을 벗 삼아 나들이를 즐길 수 있다.

+한우산 드라이브 코스(의령) 잘 정비된 길을 따라 드라이브를 하면서 한우산에 오르면 아름다운 벚꽃길이 병풍이 되어 길을 안내한다. 정상에 위치한 도깨비 숲에서 도깨비를 만나보자.



사천 용두공원



진해 내수면 생태공원



밀양 영남루 수변공원 길



김해 와인동굴

+강나루 생태공원(함안) 4월 중순이 되면 총면적 42만㎡의 청보리밭이 광활하게 펼쳐진다. 넓은 면적 덕에 방문객 간 밀접도가 낮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다.

+산토끼 노래동산(창녕) 동요 '산토끼'를 소재로 한 테마파크로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선사하고, 아이들에게는 체험학습의 장을 제공한다. 산토끼 동요관, 토끼 먹이 체험장, 레일 썰매장, 작은 동물원 등이 있어 가족 봄나들이 장소로 제격이다.

+상족암군립공원(고성)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가 조성돼 학습 장소로 인기가 많고, 고성 앞바다와 어우러지는 천혜의 절경으로 관광객에게 청량감을 주는 자연 명소다. 공원 안에 있는 공룡박물관에서는 여러 종류의 공룡화석과 공룡 발자국 화석을 만날 수 있다.

+정금차밭(하동) 지리산과 섬진강이 만나는 자연경관과 함께 세계 절 푸른 싱그러움이 가득한 정금차밭은 비대면 관광지 및 SNS 포토존 명소다.

+남사에담촌(산청)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 남사에담촌에는 집마다 정성 들여 쌓은 흙담이 있다. 흙담 사이 골목길을 걷노

라면 100년이 넘는 담쟁이넝쿨이 흙담 가득 드리워진 모습에 운치가 절로 묻어난다.

+황매산(산청·합천) 4월 말이 되면 산 전체가 철쭉꽃으로 물든다. 무장애 데크길도 따로 조성됐다. 야간에는 별과 은하수를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손꼽힌다.

+합천호와 백리벚꽃길(합천) 합천호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만나는 벚나무의 행렬은 눈을 땔 수 없이 빛난다.

+출동류 물길 트레킹길(거창) 산수교에서 출발해 자연휴양림, 월성숲, 월성마을까지 이어지는 트레킹 길로 산자락에서 이어지는 깨끗하고 시원한 계곡과 아름다운 천연림이 나만의 힐링 시간을 제공한다.

자세한 내용은 경남관광길잡이 누리집(<http://tour.gyeongnam.go.kr>) 공지사항, 경남도 관광 누리소통망(SNS)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. ❶



경상남도
GYEONGNAM



경남형 한 달 살이 경남별곡 慶南別曲



조선시대 송강 정철 선생이 관동팔경을 돌아보며
관동별곡을 지었듯이, 경남에서 자신만의 여행을
기획하고 추억을 기록에 남겨보면 어떨까요?

자세한 사항은 경남관광 길잡이(tour.gyeongnam.go.kr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